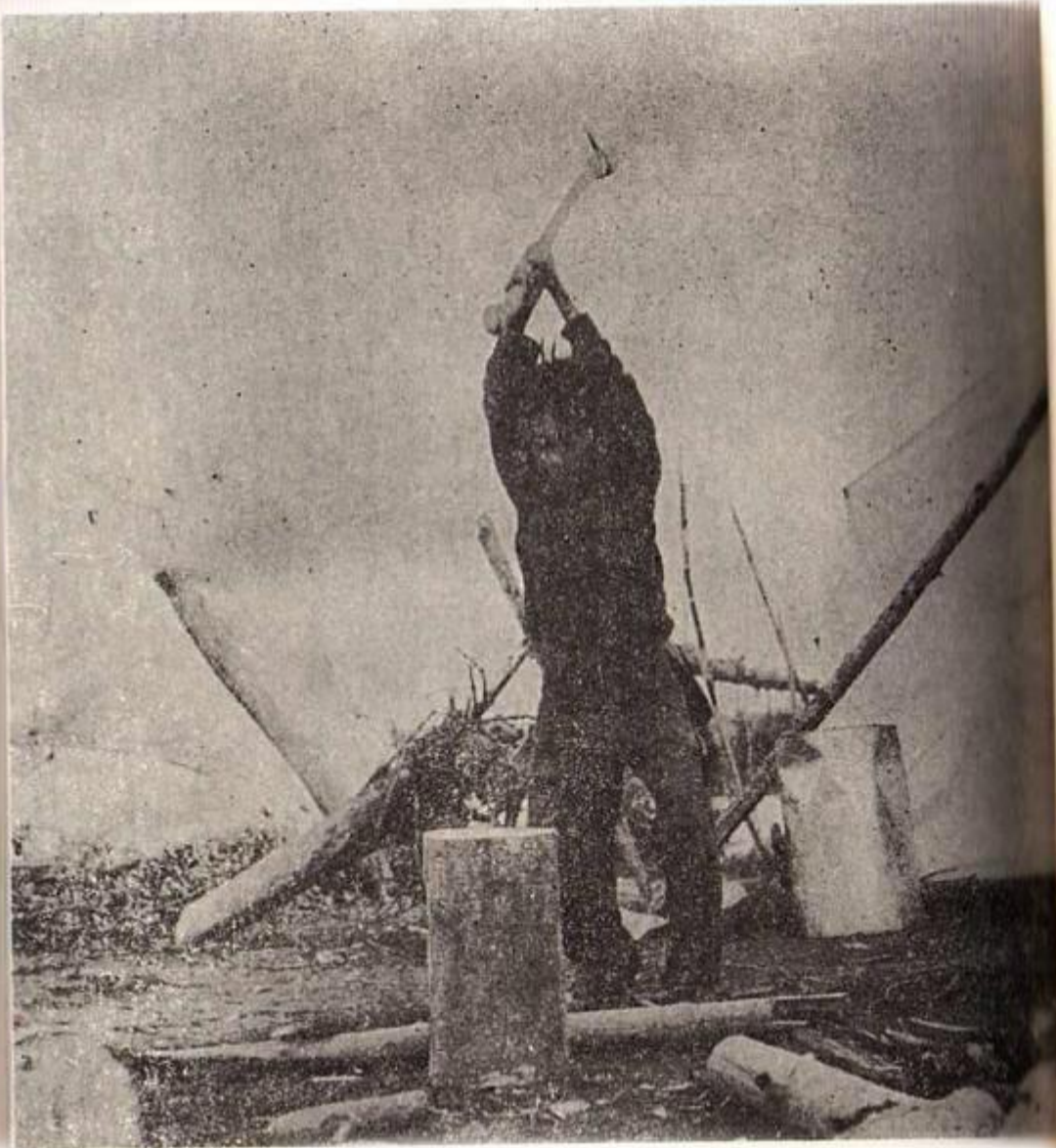


실험자와 피험자의 관계는 무엇인가?

- 박 동 섭
- littleegan@gmail.com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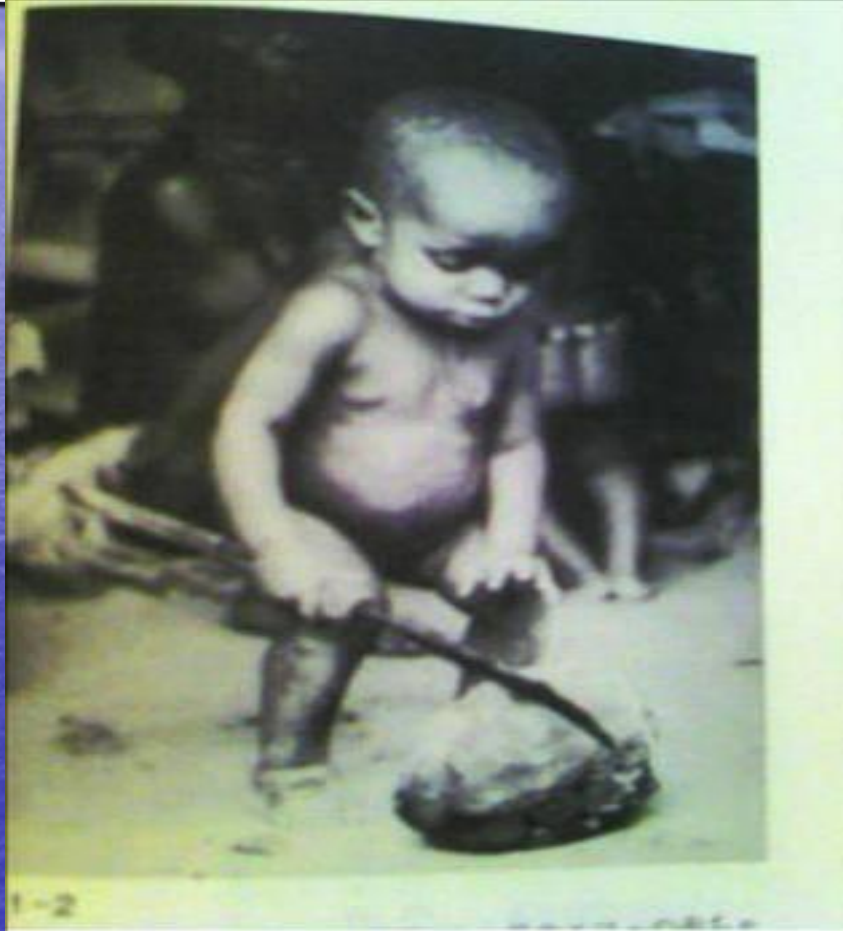
-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생각들과 행위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와 문화를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공유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도끼를 힘껏 쳐들고 난로의 빨간용 장작을 패는 11살 캐나다의 헤어인디언 소년
헤어인디언은 대략 10살부터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할것없이 장작패는 일을 시작
하고 톱질을 한다.

Hara Hiroko The anthropology of child

우리 ‘눈’에는 ‘왜’ 그렇게 보이는 것인가?



천족이 주의깊게 지켜보는 가운데 콩고의 생후 11개월된 아기는 칼과 같은것으로 과일을 능숙하게 자르고 있다 (Rogoff, 2003)

우리의 눈은 뇌의 일부이면
서도 전통의 일부이기도 하다.
Elliot Eisenr

무엇이 우리를 이 아이가
위험하다고 보고 느끼게
하는가?

혹여 우리는 우리
가 보는 것이 다른
사람이 보는 것 보
다 더 낮고 위에 있
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전통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그 전통
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사태를 볼 것인가?
(어떤 전제에서 볼 것인가?)

- 실험자: 거미와 흑사슴은 언제나 함께 식사를 합니다. 지금 거미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흑사슴은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 쿠베르의 장로: 두 마리는 숲에 있었는가?
- 실험자: 그렇습니다.
- 장로: 두 마리는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가?
- 실험자: 거미와 흑사슴은 언제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미는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흑사슴은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전통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그 전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사태 를 볼 것인가?

- 장로: 그런데 나는 거기에 있지 않아서 그런 문제에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 실험자: 대답을 할 수 없습니까? 만약 당신이 거기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대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질문을 반복한다)
- 장로: 아 그런가 그러면 흑사슴은 식사를 하고 있다.
- 실험자: 흑사슴이 식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장로: 이유는 흑사슴은 언제나 그 주변을 하루종일 왔다갔다 하면서 숲에 있는 잎을 먹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흑사슴은 조금 쉬고 나서 일어서서 또 먹기 시작한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 실험자와 장로의 이러한 의사소통의 단절은 도대체 어디서 기인하는 것인가?
-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우리 무엇을 봐야 할 것인가?

어느 일본인 연구자의 탄자니아에 서의 경험

- 나는 초등학교 3학년 표현활동에 관한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학교로부터 여러분들 집까지 약도를 그려보세요”라는 “과제”를 내고, 그들에게 하얀 도화지를 건넸다.
- 그런데 학생들은 나의 눈치를 보거나 서로 눈치를 보면서 작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 그래서 Instruction이 잘못되었는가 싶어서 다음과 같이 고쳐서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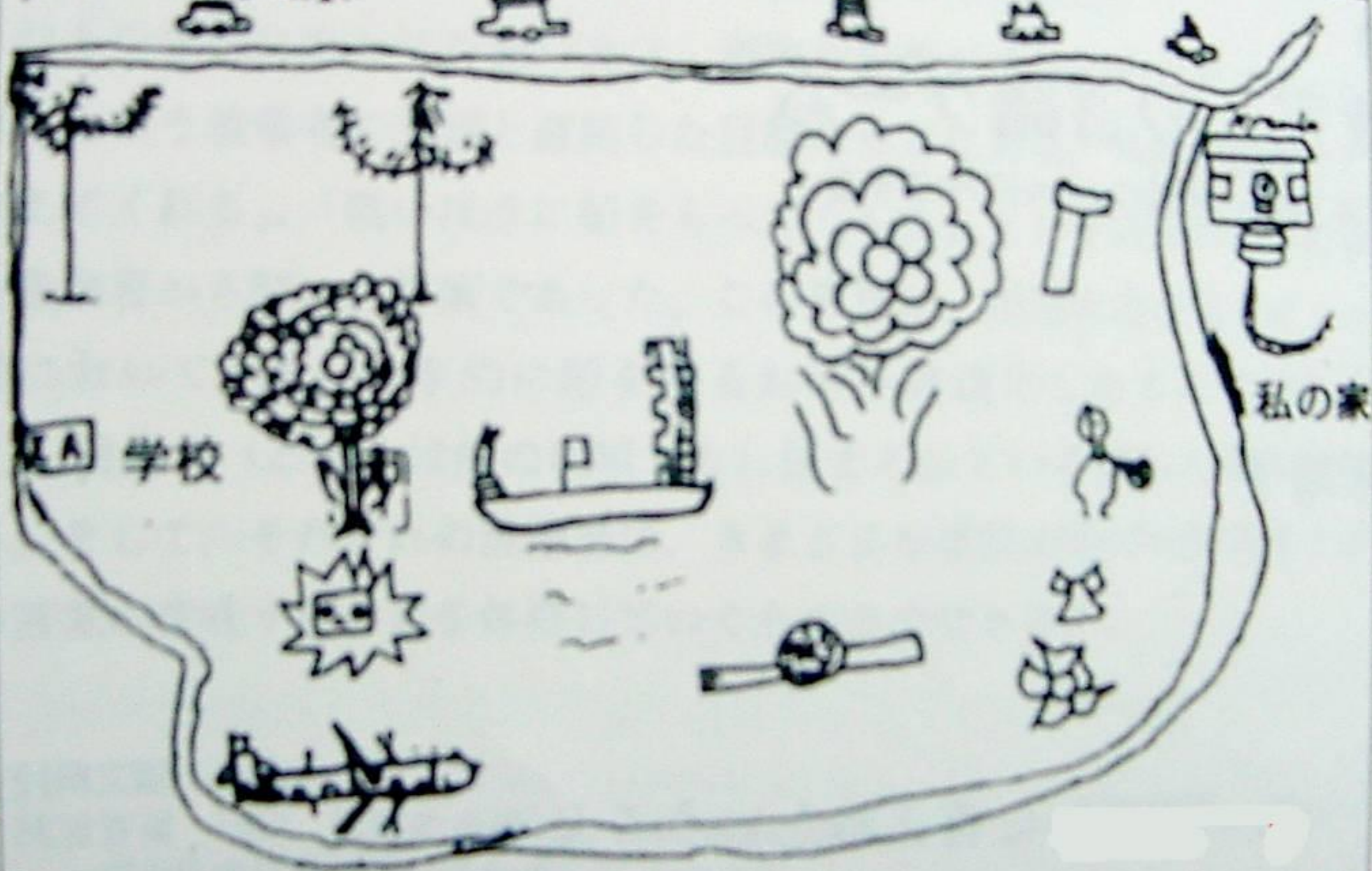
어느 일본인 연구자의 탄자니아에 서의 경험

- “내가 여러분들 집을 방문할 지도 모릅니다. 길을 헤매지 않고 여러분들 집에 갈 수 있도록 학교부터 집까지의 길을 상세하게 그림으로 그려 보세요”라고 하니까

어느 일본인 연구자의 탄자니아에 서의 경험

- 한 남자아이가 옆에 와서 “그거라면 내가 함께 가줄 수 있어요”라고 지금 당장에라도 자신의 집으로 안내해 주겠다는 것처럼 나의 팔을 잡아 끌었다. 다른 아이들도 내게 다가와서 “내가 데리고 가 줄게요” “우리 집에는 언제 오나요”라고 말하는 등 반전체가 왁자지껄하게 되었다.
-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大井町市立大井小学校



어느 일본인 연구자의 탄자니아에 서의 경험

- “이러한 에피소드로부터 나는 ‘지도를 그린다’, ‘지도로 표시해서 장소를 알려준다’ ‘지도를 단서로 해서 목적지에 도착한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똑같은 형태의 활동과 과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어느 일본인 연구자의 탄자니아에 서의 경험

- “탄자니아의 초등학교에서의 이러한 체험
으로부터 나는 내가 생각해서 ‘과제’라고
제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상대방에게도 자
동적으로 ‘과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
실히 느꼈다.

어느 일본인 연구자의 탄자니아에 서의 교육실천(산수수업에서)

- “처음 내가 탄자니아의 초등학교를 방문교사로서 찾았을 때 그 아이들은 처음 경험하게 된 산수수업에 높은 흥미를 보여주었다.
- 그런데 내가 처음에 힘들었던 것은 어떤 문제를 제시해도 학생들은 반드시 ‘그것은 언제 어디서 일어난 일인가’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었다.

어느 일본인 연구자의 탄자니아에 서의 교육실천(산수수업에서)

- 그리고 그 문제가 사실을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런 거짓말 같은 문제는 풀 수 없어요’라고 말하였다.
- 그래서 나는 문제를 사실처럼 새롭게 만들어서 다음과 같이 바꾸어서 질문을 하였다.

어느 일본인 연구자의 탄자니아에 서의 교육실천

- “사냥군인 우그휘루코트는 첫 날 다섯마리의 바다표범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에 그는 또 6마리를 잡았습니다. 이 이틀 동안 우그휘루코트는 전부 몇 마리의 바다표범을 잡았나요?”

어느 일본인 연구자의 탄자니아에 서의 교육실천(산수수업에서)

- 그러니가 여기저기서 ‘우그휘루코
트가 누구야’ ‘안다가이스키’를 말
하는 건가요 선생님’ 등등 여러 질
문이 쏟아졌다. 그래서 내가 “응
그래...안다가이스키’라고 대답을
하니까

어느 일본인 연구자의 탄자니아에 서의 교육실천

- 아이들은 실실 웃기 시작하였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얀다가이스키·우그휘루코드는 매우 동작이 굼뜩 사냥군으로서 평생 동안 바다표범을 2마리밖에 잡지 못했다고 한다.
- 게다가 2마리 바다표범중의 한 마리는 자기 스스로 얀다가이스키의 총구에 몸을 갖다 대어서 잡히고 말았던 것이다.

어느 일본인 연구자의 탄자니아에 서의 교육실천

- ‘이런 거짓말 문제를 우리들이 풀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이들은 문제에 대답하기는커녕 교사인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섭공과 공자의 대화

- “공자에게 섭공이 물었다. 우리 마을의 정직한 자가 있으니 그의 아버가 양을 훔치자 이를 고발했습니다. 참으로 정직하지 않습니까?”
- 공자가 답해준다. ‘너희 마을의 정직한 자는 그러냐? 우리 마을의 정직한 자는 다르다. 아버지는 훔친 자를 숨겨주고 아들은 훔친 아버지를 숨겨준다. 이게 우리 마을의 정직한 자다’.

섭공과 공자의 대화

- 이 때 공자가 해석학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정직함'의 뜻은 묻는 자, 답하는 자, 우리 마을과 너희 마을, 이때와 저 때의 맥락에 개방되어 있다.

섭공과 공자의 대화

- 이런 맥락성을 통해 공자는 저 삼엄한 개념의 근본주의나 유가 윤리의 엄숙주의에서 빠져 나오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공자학 자체로부터 빠져 나오고 있다.
- 마치 마르크스가 '나는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다'라고 선언했을 때처럼.
- 그럼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을 우린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어느 일본인 연구자의 탄자니아에 서의 교육실천

- 탄자니아 에피소드는 한국(일본)의 초등학교 수업에서는 너무 당연한 교사와 학생의 대화가, 탄자니아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통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그 아이들은 그 일본인 연구자가 만들려고 한 이른바 학교적 discourse (schooled discourse)의 context를 공유하지 못했다.

어느 일본인 연구자의 탄자니아에 서의 교육실천

- 그러한 현상은 학생들의 cognitive skills -인지기술(Piaget)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과 그 연구자 사이에 존재한 이 마을 저마을, 묻는자, 대답하는 자와 같은 맥락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 탄자니아 아이들은 너무나도 논리적이지 않은가?
- 다만 그들은 일본인 연구자가 사용하는 말과는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었을 뿐이다.